

神 學 斷 片 (2)

罪, 義, 救援.

鄭 晉 慶

죄(罪)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죄는 절도, 살인, 간음, 거짓증거 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성서는 이런 죄들을 위법(違法)이라고 하며, 이것이 죄의 본체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죄의 본체는 여러가지가 아니고 하나이다. 이 하나의 결과로써 많은 죄가 생겨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의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성서가 배척하는 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시려는 인류의 죄는 이것이다. 모든 인류의 비참과 고통은 이 죄로 인해서 온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범한 죄는 위에 말한 반역이다. 금단의 과실을 따 먹었다는 사실은 그리 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그의 후손을 저주하신 것은 아니다. 악마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저들의 반역의 뜻을 표시하

기 위하여 이 금령을 범한 때문에 저희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유리하게 되었다. 고로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 반역(反逆)은 먼저고 파계(破戒)는 나중이다. 즉 죄는 먼저고 위법은 그 결과이다. 이 같은 시조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부자(父子)의 관계는 끊어졌다. 이같은 절연(絶緣)을 신학적으로 인류의 타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의(義)는 무엇인가?

죄가 반역인 고로 의는 귀순(歸順)이다. 모든 죄는 반역에서 오고 모든 덕(德)은 귀순에서 온다.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의의 선고(宣告)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모든 불의에 빠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귀순함으로 모든 덕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때 죄가 발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갈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근본이요 도덕은 그 결과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됨과 같이 인간이 어떤 공적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잃어버렸던 도덕의 본질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고로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얻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원(救援)이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께를 떠나는 것이요. 의는 하나님께로 귀순하는 것임을 알면 구원이 무엇인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제거하고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역사(役事)요. 인간 편에서 보면 반역한 하나님 품으로 다시 귀의(歸依) 하려는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仲保者)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구원은 양자(神人)를 화목케 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반역, 귀순, 구원, 즉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귀순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인간은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끝)

<筆者 서울神學大學 教授>

投稿 歡迎

- 1 說教 2 論說 3 宗教教育에 관한 글 4 隨筆 信仰美談 于證 5 信仰偉人傳 6 聖詩 7 聖書와 信仰에 對한 質疑 8 教會消息 9 其他

原稿 보내실 곳

基督教 大韓聖潔教會 出版部

서울 特別市 中區 武橋洞 12

전화 ②5091